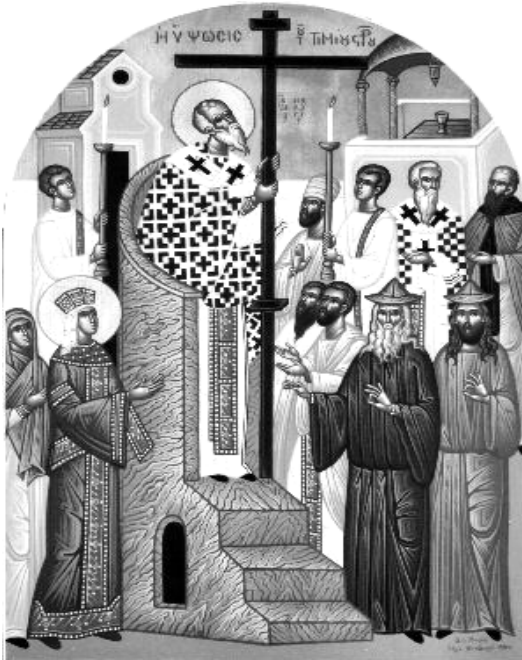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십자가 현양 / 9월 14일

십자가 현양 전 주일

성 미노도라, 미트로도라, 님포도라 순교자

제5조 / 조과복음 3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에서

- 제5조 부활 찬양송 / 82, A 215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모 탄생 축일 찬양송 / 186, B 206
- 성당 찬양송
- 성모 탄생 축일 시기송 / 186, B 207
- 사도경 : 갈라디아 6, 11-18 / 190, 봉독서 303
- 복음경 : 요한 3, 13-17 / 190, B 210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 보르피리오스의 지혜로운 말씀 “성인의 힘은 아주 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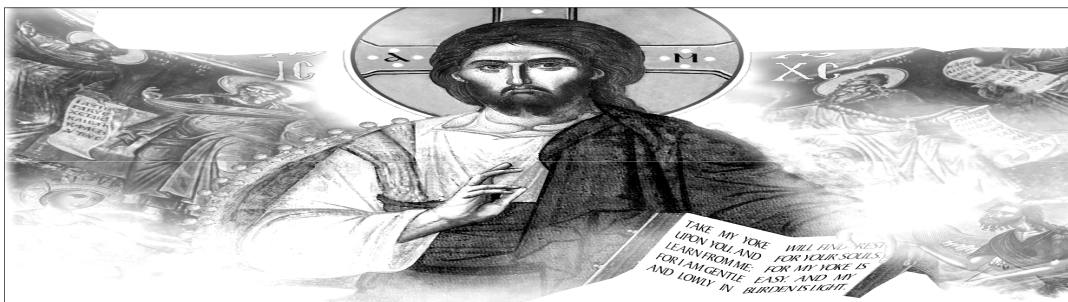
성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500,000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수도원에 한 수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자는 깨끗한 손을 하느님께 올리고 죄를 짓고 있는 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별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수도자의 간구 때문에 하느님께서 500,000명을 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인들은 모든 것에 대해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성인은 원하는 것을 베풀어주시길 하느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인들의 힘은 아주 강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 20) 사도 바울로는 이 말씀을 통해 삶의 자세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한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대신에 ‘그리스도’를, ‘율법’ 대신에 ‘믿음’을, 과거의 ‘옛사람’ 대신에 현재의 ‘새 사람’으로의 변화가 그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알아보시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기본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을 마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옛사람의 세속적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돌아가심과 무덤에 묻히심과 부활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물에 세 번 침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무덤을,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세례조의 축성된 물은 죄로 물든 육신을 죽게 하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순간은 세상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로써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란 하나님과의 뜻과는 반대되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더러움으로 물들게 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로는 세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갈라디아 6, 14) 이제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는 죄로부터의 속박과 사슬에 구속하여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총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신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 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뜻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의지를 주님의 뜻에 따라 조화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그에 알맞게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영적 아버지의 역할4



안토니 블룸 대주교

☞ 지난 주 안토니 블룸 대주교의 글에서 계속됩니다.

영적 아버지가 감당해야할 과제들 가운데 하나는 한 사람의 인격을 영적 자유 안에서, 곧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왕의 자유 안에서 교육시키는 데 있다. 영적 아버지는 자기 자녀가 모든 하찮고 사소한 일들에 대해 달려와서 조언을 구하는 식으로 그의 일생 동안 유치하고 어린애 같은 상태에 있게 해서는 안 되며, 도리어 성숙하게 자라가면서 성령이 자신의 마음 속에서 침묵으로 하는 말들을 듣는 법을 배우게 해야 한다.

겸손은 우리가 하느님의 의지와 평화를 이뤘을 때의 상태를 뜻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의 의지에 무한정으로, 완전하게 그리고 기뻐하면서 바치고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저에게 행하십시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이루는 모든 환경이나 조건들과도 평화를 이룬 것이다. 좋은 것이든 형편없는 것이든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다. 하느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특사(特使)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며,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이 되며,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이 되라고 우리를 보내신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반드시 평화로운 곳, 이를테면 교회 안이나 예배를 드리는 도중처럼 신도들이 함께 모여 있어서 서로를 보호해주는 곳이 아니며, 도리어 흉하게 망가진 세상의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우리가 홀로 서 있는 그런 곳들이다.

다른 한편으로 만일 우리가 겸손이라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을 생각한다면, 이 말이 ‘기름지고 수확이 많은 땅’을 가리키는 단어 ‘후무스’(humus)에서 왔음을 알 수 있다. 테오판 성인(St. Theophan, 1815-1894)은 이것에 대해 쓰고 있다. 그냥 땅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라. 땅은 하늘을 향한 채로 조용히, 열린 자세로, 아무것도 방어하지 않으면서,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채로 그곳에 누워있다. 땅은 하늘에서 무자비할 정도로 뜨겁게 내려 쪼는 열기와 태양 광선, 비와 이슬 등을 받아들인다. 땅은 또한 우리가 비료 또는 거름이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버리는 온갖 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땅이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땅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굴욕과 모욕이라고 부르는 것을 견디면 견딜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 다음 주 주보에 계속됩니다.

▶ 아타나시아

소 식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9월 14일 목요일은 교회의 큰 축일인 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높이 들어 올리고 십자가의 힘을 받아 영적 생활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축일 성찬예배에 참여합시다. 이날은 성 대금요일처럼 엄격한 금식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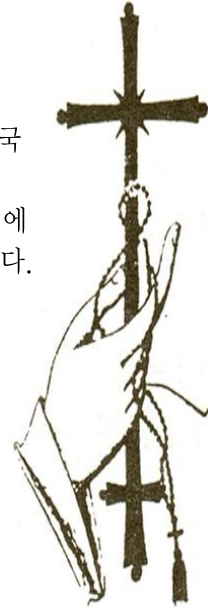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위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18기 자문위원 및 상임위원으로 정교회 한국 대교구의 안토니오스 임중훈 신부가 위촉되었습니다. 이 기관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헌법기관입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 가을 야유회

오는 9월 17일 주일에 가을 야유회를 갈 예정입니다. 성찬예배가 끝난 후 미포구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준비한 점심을 다 함께 먹고 재밌는 게임, 운동과 오락 시간을 가지며 친교를 나눌 예정입니다. 모든 교인께서는 준비하여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예식

■ 9월 14일(목) 십자가 현양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